

(9) ④영등당① (한림읍 한림리)

옛날, 성은 황씨.
이름은 영등이라는
민간 사름도 아니고
저상 사름도 아니고
요왕 사름도 아닌
대왕이 무휴에서 솟아나.
요왕황저일 들어가.
이 때 동정국 애기씨 ھ고
서정국부인광, 서녀광 서이가
나발이평개에서
노념을 훌 때에
한수릿 괴깃배가
풍파를 만나서
외눈배기 땅데레 불려감시니
영등대왕이 나산
“저 사름을 구제해서 살리라.”
ھ여,
큰 왕석 우이 가 앗아시니.
배가 그 안으로 들어갔수다.
영등대왕이 그 사름들을
전부
왕석 쏘곱데레 곱져부니
외눈배기놈들이 물어먹을랴고
개를 드리고 들어오면서
“곧, 이제 존 반찬이 왔는디
어디 갔느냐?고 ھ자.
영등대왕은,
“나도 그런 걸 봉글랴고
나앗았다.” ھ니
외눈배기놈들은

다 나가부렸수다.

영등대왕은 배를 내여놓아

보제기들을 보내면서

“이 배를 탕 가면서

‘가남보살 가남보살’ 흐멍

가라.”고 시겼수다.

보제기들은 배를 타두서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불르멍 돌아오는디,

거저 훈곳이 당흐여가난

“가남보살을 아니불른덜

이제사 관계 엇다.”

해서,

그만, 가남보살을 아니불르니

호련 강풍이 또시 일어가지고,

또로 외눈배기 땅데레 들어가니.

영등대왕은 〽리에 그 자리에

나맞아 이서,

보제기들은

“살려줍서”고 빌었수다.

영등대왕은

“왜, 그 때에

내가 뭐라고 흐더냐?”

흐면서

“따시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불르멍 가라.”고 흐였수다.

경흐고 또

“훈곳딜 가더라도

가남보살을 불르멍 땡이곡,

영등들 초흐를날랑

날 생각을 흐여라.” 흐니

그 때에 보제기들은

가남보살을 불르멍

괴양 한수리??지 돌아왔수다.

글지후제 외눈배기놈들은

영등대왕신디 가
“당신 덕분에
존 반찬을 못먹었다.”고 해서
영등대왕을
장도칼로 삼도막에 그차
죽여.
바당데레 내껴부니,
머릿빡은 소섬으로 올르고,
발치거린 한수리 비꿀물로
올르고,
한준동은 청산으로 올르니,
민간 백성들은
바당에 수중액을 막아준
영등대왕의 그 은혜를
생각하연,
소섬에서
정월 구믐날 제를 치고
초회를 날 비꿀물에 오고,
청산은 초닷쇳날
영등제를 시작흡네다.
그 때에 영등대왕이
제를 잘 받아먹으민
고양데레 가곡.
일년에 한번 돌아보는
조상이우다.
이 영등대왕은
소섬에도 처가 있고,
청산도 처가 있고,
한수리도 처가 있어.
각시는 삼첩입네다.

제일,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림읍 옹포리 남무 50세 김승은님>

(9) ①영등당② (한림읍 한림리)

<영등당>

영등당의 본초는 영등대왕이고
영등대왕님의 본초는
유대감댁 글그리치단 선싱이우다.
영등대왕의 성은 전(田)씨이고
이름은 영등(靈登)이우다.
영등대왕이 원천군 유대감댁에서
소년으로 망년??지
거주할 때에
선비를 거느려
글을 그리치단에
망년에 소망되였수다.
소망일주는 이월초하로라.
유대감이 잊힐 수 엇는
애정으로, 제소를 헌였는디.
훈번은
소망된 전영등 혼령이
나타나서 감소훈 인수를 헌명
“저는 인정을 갚을 수
엇습네다.
앞으로는 큰 숭년이 당할 테인데
당신네 집에는
큰 풍년을 시기겠습네다.”
헌여,
이 말이 끝나자
간 곳이 엊어졌는데,
아닌게 아니라
앞으로 숭년이 닥쳐오라도
그 가정만은
특별한 풍년이 되였습네다.
영등의 혼령 덕분에

풍년이 된 것을 믿고 있는
유대감의 뜻은
원천군 전역에 전해지자,
모두가 이 영등을 위찬^호게
되였습네다.
그 영등대왕의 덕으로
농수에 풍년과
해상에 해산물이 풍성^호여지니.
온 백성이
글주후젠
“이 영등의 혼령을
잊힐 수가 없다.”^호여
제주삼읍에 문 펴져서
기도장수^흡네다.
기도장수는 제주시, 수원,
서귀읍, 소섬,
이초록 네곤데서
이월 초^호를날
영등굿을 잘 치여서
덕을 입고,
못치며는 악화가 닥칩니다.
이 영등대왕이
제주도를 한번 쑥 술펴보민,
선호 사름, 악호 사름을
문 골리곡,
정월 구뭄날 소섬으로
들어오민
수원에서 축원^호여
일뢰만이 전송^흡네다.

제일 2월 1일부터 7일간.

<애월면 신엄리 남무 42세 양태옥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579-580.